

보호동기이론(PMT)과 건강신념모델(HBM)을 이용한 관광객 위기대응 행동 분석: COVID-19 위기*

우은주

부경대학교 경영학부 관광경영전공 부교수

이상탁

경남대학교 관광학부 관광항공경영학전공 부교수

Examining Tourists' Behavior Using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and Health Belief Model: Covid-19 Crisis

Eun-Ju Woo^a, Sang-Tak Lee^b

^a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Pukyong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bDivision of Tourism Studies, Kyungnam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28 February 2022, Revised 18 March 2022, Accepted 25 March 2022

Abstract

Purpose -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ourists behavior by applying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and health belief model during COVID-19 pandemic. Specifically, the study examined how risk perception of COVID-19 affects tourists' protection motivation and travel avoidance intention.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e empirical data was collected by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to obtain perception and behavior regarding COVID-19 pandemic situation. A total of 486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and SEM analysis was applied in order to examine seven hypotheses.

Findings-The results showed that COVID-19 risk perception is a significant antecedent of threat appraisal, coping appraisal, and cue to action (H1, H2, H6). Moreover, protection motivation is affected by threat appraisal and coping appraisal (H3, H4) and influences on travel avoidance intention (H5). However, cue to action does not affect protection motivation (H7).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is study provides insightful implications for tourism industry practitioners who will prepare the post-corona field and the results enrich knowledge of the tourist behavior during pandemic situation.

Keywords: Covid-19, Risk Perception, Health Belief Model,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JEL Classifications: L83, M31, M50, L15

I. 서론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2019년 12월 최초 발생하여 현재까지 전 세계의 경제, 금융, 산업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잠재 관광객의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다양한 관광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관광기구 (UNTWO)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관광객은 약 8-9억명 가량 감소하였으며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A8064281)

^a First Author, E-mail: eunjuwoo@pknu.ac.kr

^b Corresponding Author, E-mail: plustak@kyungnam.ac.kr

© 2022 The Institute of Management and Economy Research, All rights reserved.

이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액은 약 1,400조원에 이를 것이라 예상하였다. 다양한 관광산업 분야 중 특히 항공업은 국가간의 입국 제한과 조건이 까다로워 짐에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충격을 받고 있으며 그 피해액은 약 42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IATA, 2020). 다음으로, 많은 영향을 받은 관광산업 분야는 여행사 및 호텔업계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 여행사 약 1,000여곳이 문을 닫았으며, 호텔 객실 점유율도 한자리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기연구원, 2020).

코로나-19가 이렇듯 장기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관광 시장과 산업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먼저, 코로나-19와 관련된 해외 연구를 살펴보면, 선행연구는 크게 다섯 분야로 요약할 수 있다. 1) 연구분야 및 정책적 시사점 제시(Jiang & Wen, 2020; Sigala, 2020; Tremblay-Huet, 2020; Yeh, 2020; Zenker & Kock, 2020; Zielinski & Botero, 2020) 2) 사례 및 비교 연구(Carr, 2020; Chen et al., 2020; Foo et al., 2020; Hao et al., 2020; Rogerson & Baum, 2020)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전략(Bhati et al., 2020; Lew et al., 2020; Li et al., 2020; Nepal, 2020; Wen, et al., 2020; Zheng, Luo, & Ritchie, 2020) 4) 공급자 및 지역주민 태도 분석 (Couto et al., 2020; Mao et al., 2020) 5) 관광객 행동 연구(Bae & Chang, 2020; Han et al., 2020 a,b; Kock et al., 2020; Neuburger & Egger, 2020; Sanches-Canizares et al., 2020; Zhang, Hou, & Li, 2020). 먼저,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된 연구분야 및 정책적 시사점 제시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Sigala (2020)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연구 분야를 반응, 회복, 재시작 단계로 구분하고 시간적 단계에 맞는 관광 공급 및 수요와 정책을 제시하였다. Zielinski & Botero (2020)는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해법 관광 연구분야를 논의하였으며, 특히 이전 관광시장에 영향을 미친 사스(SARS)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향후 연구 방향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사례 및 비교 연구를 살펴보면 Rogerson & Baum (2020)은 코로나 19가 아프리카 관광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 발전해야 할 관광 분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비슷한 연구로 Carr (2020)은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코로나 시대 이전과 이후의 관광 개발 관점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코로나-19 관련 국내 관광분야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면 크게 네 분야로 제시할 수 있다. 1) 팬데믹 현황 분석 및 대응전략 제시(고동우·이상훈·정소정, 2021; 김영현, 2021; 김예슬·진현정, 2021; 나종민·윤혜진, 2021; 박창원·이상현·이여경, 2020; 안동·유효강, 2020; 이용규·구정대, 2020; 하경희·신원섭, 2021; 하정우·김창수, 2020), 2) 관광객들 행동 연구 (김동현, 2021; 김성태, 2020; 김영남·홍성화, 2020a,b; 류나은·김인신, 2020; 이관표, 2020; 이승훈, 2021; 이주양, 2021; 이진희·김나영, 2021; 이진희·김남조, 2021; 정산설·김경배·이훈, 2021; 조승아, 2021a,b; 하홍국·이희찬, 2020; 홍경옥, 2020; 홍민정·오문향, 2020), 3) 코로나와 관광교육 관계(김난영, 2021; 나소정, 2020; 양진연·문상정, 2021), 4) 해외사례연구 (안동·유효강, 2020). 먼저 팬데믹 현황분석과 관광시장의 영향을 살펴본 논문을 보면 김예슬·진현정 (2021)은 코로나 19 발생 이후에 관광문화 산업이 겪은 경제적 피해 및 손실을 파악하였으며, 나종민·윤혜진 (2021)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진행된 다양한 정책들의 성과와 중요성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관광객들의 행동을 분석한 논문을 살펴보면 이진희·김나영(2021)은 코로나-19상황에서 관광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시장을 세분화하였으며, 이진희·김남조(2021)는 근거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코로나-19시대에 잠재 관광객들의 관광 행동 변화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된 비대면 교육방식이 관광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또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온라인 교육서비스의 품질이 전공만족도에 증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소정, 2020).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관광학 분야에서는 현재까지 소수의 논문만이 존재한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선행연구가 현황 파악 및 극복방안을 공급자(supply)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으며 코로나 기간에 관광객들(demand)의 행동을 적합한 이론을 바탕으로 살펴본 논문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Sigala, 2020; Zenker & Kock, 2020).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관광사업이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수요자(demand)인 관광객들의 행동 이해를 바탕으로 실무론적인 전략을 제시할만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위기상황에서 건강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적용되어왔던 보호동기이론(Protection Motivation Theory)과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을 관광객들의 행동 이해를 위해 적용함으로써 코로나-19라는 외부의 위협인지와 관광객의 보호동기 행동을 살펴보는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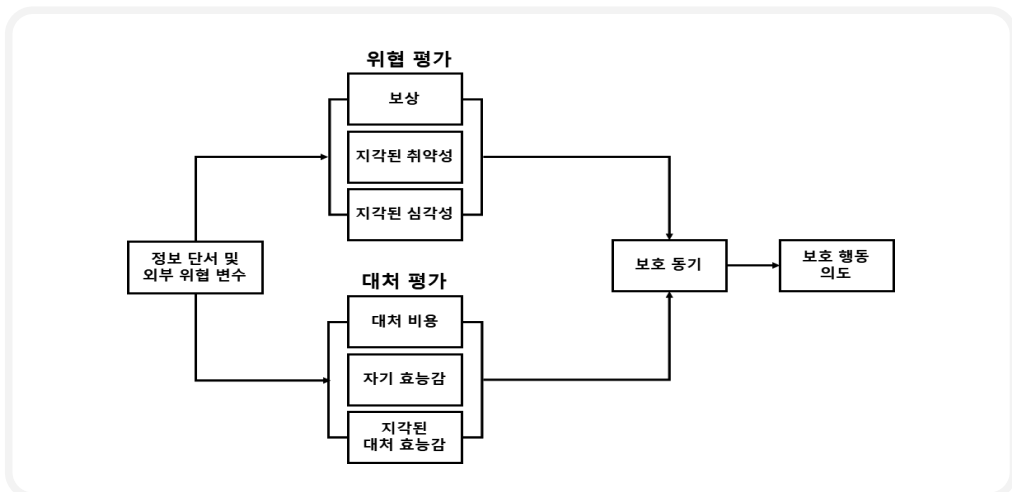
1. 보호동기 이론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PMT)

보호동기이론 (Protection Motivation Theory:PMT)은 Rogers (1975)에 의해 최초로 제안된 이론으로 기대-가치이론 (expectancy-value theory)과 인지적 정보처리이론(cognitive processing theory)을 기반으로 제시되었다. 보호동기 이론의 핵심은 외부의 공포나, 위협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외부의 메시지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여 행동의 변화를 하기보다는 행동의 결과와 그 결과의 가치에 대해 인지적인 과정을 통해서 평가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즉,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은 다양한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이는 보호 동기를 형성시켜 최종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최초의 보호동기이론 (Rogers, 1975)은 개인의 행동 변화에 동기를 부여하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지각된 심각성(perceived severity), 지각된 취약성 (perceived vulnerability), 지각된 대처효능감 (perceived response effectiveness)을 제시하였다. 지각된 심각성은 위협적인 사건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심각성 정도를 의미하며, 지각된 취약성은 위협적인 사건이 자신에게 발생하게 될 가능성 정도, 지각된 대처효능감은 위협적인 사건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응 방안의 효율성의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변인들은 인지적 과정(cognitive process)에 의해 평가되며 보호 동기의 강도를 결정지으며 이에 따라서 권고방안을 받아들이려는 행동 의도가 결정된다.

초기의 보호동기 이론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Rogers (1983) 와 Maddux and Rogers (1983)에 의해 수정된 보호동기 이론이 제시되었다 (그림1). 수정된 보호동기이론은 기존의 보호 동기를 결정하는 세 가지의 변수(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취약성, 지각된 대처 효능감) 이외에 보상(reward), 자기효능감(self-efficacy), 대처비용(response cost)이 추가되었다. 보상은 위험한 행동 수행 시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타인에 의한 통제나 사회적 합의인 외적보상과 개인이 느끼는 만족, 성취감, 자부심의 내적 보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개인 구성원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대응 방안인 회피행동을 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이며, 대처비용은 제안된 행동을 수행할 때 지출되는 시간, 금전, 노력 등의 지각된 기회비용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호동기 이론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위협에 대한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취약성, 자기효능감, 대처효능감이 개인의 보호 동기에 영향을 미쳐 위험감소 행동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지각된 대처비용과 보상은 위험감소 동기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 즉 보호동기

Fig 1. 수정된 보호 동기 이론



이론은 보호동기를 유발하는 여섯 가지 요소가 보호동기에 영향을 주고 개인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위험감소 행동을 유발한다.

보호동기 이론은 최초 위험한 행동을 예방하고 건강한 행동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지만,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건강증진, 환경오염, 정치적 이슈, 미디어 건강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 개인정보 유출 등 어떠한 위협이든 개인적인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예방할 방법이 제시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호동기 이론이 적용되었다(김정은·김성준·권두순, 2016; 김종기·김상희, 2013; 이민규·김영은, 2009). Floyd et al. (2000)은 보호동기 이론을 적용한 학술연구논문을 메타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 여섯 가지 분야가 건강과 관련된 분야였으며 (암예방, 운동·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금연, AIDS 예방, 알코올 소비, 의료치료법 준수), 그 외에 환경보호, 안전운전, 독감 예방접종 등에서도 보호동기 이론이 적용되었다.

국내·외 관광 및 호스피탈리티 분야에서 보호 동기 이론을 적용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극히 소수의 연구에 불과하다. 먼저, 국내 선행연구 중에서 보호동기이론을 적용한 논문은 세 편에 불과하다 (문지효·이종원, 2020; 박정숙, 2016; 이민재·서원석, 2012). 이민재·서원석(2012) 북한의 위협이 외국인들의 여행 태도와 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북 간의 정치적인 불안정은 보호 동기 평가과정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보호 동기는 여행회피 의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박정숙(2016)은 관광지에서 발생한 위협의 지각이 보호 동기 (심각성, 취약성, 대처방안의 효율성, 자기 효율성)를 매개로 관광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여행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자연재해나 테러와 같은 위기에 대한 두려움은 관광객들의 회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참여 행동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비인지성은 참여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려움과 비인지성은 보호 동기를 매개로 여행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문지효·이종원(2020)은 최근 발생한 코로나-19의 인지가 인구통계학적인 특징과 보호동기 요인 (심각성, 취약성, 자기효능감, 반응효능감)에 의해서 여행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20대 이상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심각성과 반응 효능감만 여행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보호동기 이론을 관광 및 호스피탈리티 분야에 적용한 논문도 소수에 불과하다(Chen et al., 2020). 먼저 Chen et al. (2020)은 스키관광을 즐기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사전지식이 환경보호 행동 의도에 미치는 관계를 보호동기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전지식은 지각된 취약성, 지각된 심각성, 반응효능감, 반응비용,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행동의도에는 지각된 심각성, 반응비용,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Seow et al. (2020)은 보호동기 이론을 적용하여 의료관광객들의 행동의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취약성, 자기효능감, 대처효능감은 의료관광 행동의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보호동기 이론을 적용한 논문들을 살펴본 결과, 외부 위협요소는 위협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은·김성준·권두순, 2016; 문지효·이종원, 2020; 우형진, 2014; 이민규·김영은, 2009; 이민재·서원석, 2012; Chen et al., 2020; Maddux&Rogers, 1983; Rogers, 1975; Rogers, 1983; Wang et al., 2019). 따라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가설1을 설정한다.

H1, 코로나-19 위협성인지는 위협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대처평가 요소인 대처비용, 자기효능감, 대처 효능감도 외부의 위협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기·김상희, 2013; 이민규·김영은, 2009; 이민재·서원석, 2012; 우형진, 2014; 1975; Chen et al., 2020; Rogers, 1983; Maddux&Rogers, 1983; Wang et al., 2019). 따라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가설2를 설정한다.

H2, 코로나-19 위협성인지는 대처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인지평가 과정인 위협평가와 대처평가는 보호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종

기 · 김상희, 2013; 이민규 · 김영은, 2009; 이민재 · 서원석, 2012; Chen et al., 2020; Horng et al., 2014; Rogers, 1975; Rogers, 1983; Ruan, Kang, & Song, 2020; Seow et al., 2020, Wang et al., 2019), 선행연구를 기초로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 3과4를 제시한다.

H3, 위협평가는 보호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H4, 대처평가는 보호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위협평가와 대처평가에 의해서 결정된 보호동기는 최종적으로 보호행동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김정은, 김성준, 권두순, 2016; 김종기& 김상희, 2013; 박정숙 &이훈, 2017; 이민규 &김영은, 2009; 이민재 & 서원석, 2012; Rogers, 1975; Rogers, 1983; Maddux&Rogers, 1983, Wang et al., 2019). 따라서 아래와 같은 가설5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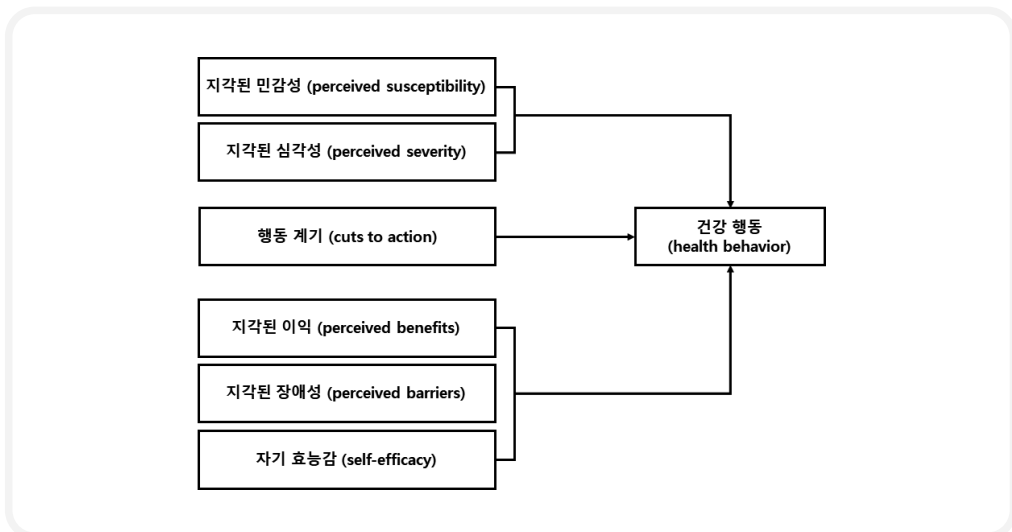
H5, 보호동기는 관광회피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2. 건강신념모델 (Health Belief Model)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 HBM)은 예방적인 건강 행위에 대한 반응을 예측하기 위해서 사회심리학자인 Hochbaum (1958) 의해 고안된 모델이다. 최초, 건강신념 모델은 공중보건 서비스로 제공되는 무료검진 사업에 검진자 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개발된 모델이지만 모형이 확대 · 수정되면서 더욱 일반적인 건강 관련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로 발전하였다(Glanz et al., 2008). 건강신념모델의 기본적인 전제는 건강 관련 행동은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개인이 제시된 건강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인 지각상태와 권고된 행동을 시행할 때 발생하는 지각된 비용과 장애성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건강신념모델의 대표적인 구성 개념으로는, 지각된 민감성 (perceived susceptibility), 지각된 심각성 (perceived severity), 지각된 이익 (perceived benefits), 지각된 장애성 (perceived barriers),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행동계기 (cues to action)가 있다(그림2). 지각된 민감성은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Fig 2. 건강신념모델 (Health Belief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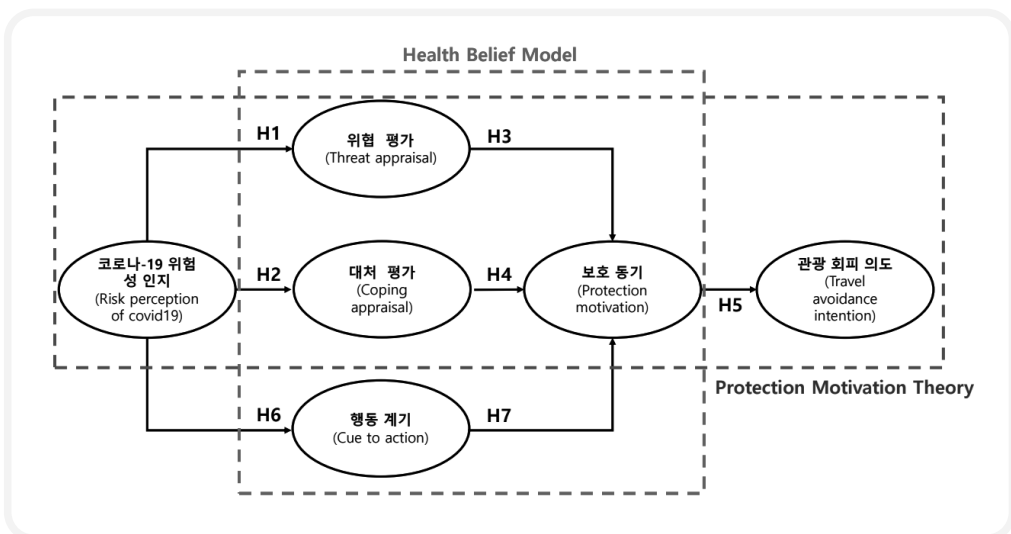


인 위협인지의 정도로 제시된 건강행동을 시행하지 않을 때 질병에 걸릴 가능성으로 볼 수 있으며, 지각된 심각성은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개인들이 인지하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주관적인 신념이다. 즉, 개인이 특정 질병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심각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지각된 이익은 제시된 건강 행위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의미하며 개인이 느끼는 질병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신념이다. 따라서, 지각된 이익이 높을수록 건강 행위에 대한 실천도가 높아진다. 지각된 장애성은 건강과 관련된 제시된 행동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로 건강행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고통, 불편, 비용상의 부담을 지칭한다. 즉, 지각된 장애성은 건강 행위를 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목표나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본인의 행동이나 감정, 사고 과정 등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개인 능력에 대한 신념의 정도이다. 마지막으로 행동 계기는 행동을 실행하게 만드는 계기로써 이는 매스미디어의 정보, 기사, 공익광고, 타인의 조언 등 건강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내·외적인 자극을 의미한다.

건강신념모델을 적용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질병이 없는 사람들의 예방적인 행동을 예측하는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었지만, 점차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내·외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는 흡연행동 (Balbach et al., 2006), 비만·다이어트 (O'Connell et al., 1985; Sapp & Weng, 2007), 음식안전 (McArthur et al., 2006), 암검사행동 (Champion, 1984), 미디어안전 (안순태·이하나, 2016), 정보보안 (조성배·권두순·이미영, 2014)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HBM이 관광이나 호스피탈리티 분야에 적용된 경우는 소수의 논문에 불과하다. Lee (2013)는 호스피탈리티 분야에 HMB 이론을 최초로 적용함으로써 레스토랑에서 건강한 음식을 먹는 행동에 관해 분석하였다. HBM과 계획된 행동이론을 통합한 모델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각된 자기효능감과 지각된 심각성이 건강식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ang et al. (2020)은 HBM과 계획된 행동이론 (TPB)을 통합하여 고지대 관광지에서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보호 행동을 조사하였으며, Donohoe et al. (2018)은 HBM을 이용하여 건강보호 행동의 요인변수를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외부 노동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비슷한 연구로 Shim 과 You (2015)는 식품안전질병과 음식소비의도 관계를 HBM을 통하여서 살펴보았다. 최근 Bae 와 Chang (2020)은 코로나 19시기에 언택트 관광을 계획된 행동이론과 HBM이론의 위협인지 변수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김유경 et al (2012)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치과의료관광의 지각된 구매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HBM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며 지각된

Fig 3. 연구모델



심각성, 지각된 취약성, 지각된 이익이 중국인의 한국 치과의료 서비스 구매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 외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건강신념모델에서 지각된 이익, 자기효능감,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심각성, 행동계기 모두 건강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지각된 장애는 건강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경 et al., 2012; 안순태 · 이하나, 2016; 조성배 · 권두순 · 이미영, 2014; Bae & Chang, 2020; Donohoe et al., 2018; Huang et al., 2020; Lee, 2013). 또한, HBM의 주요 변인 중 행동 계기는 건강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주요 변인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으며 그에 관한 연구도 매우 미흡하다 (강민지, 2017; Lee,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보호동기이론과 건강신념 모델에서 보호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제시된 변수 중 공통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서 건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 계기와 관련된 가설과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그림3>

H6, 코로나-19 위험성 인지는 행동 계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H7, 행동 계기는 보호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III. 연구 방법론

1. 측정변수

제시된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설문지의 변수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초기의 문항을 도출하였다. 초기의 설문 문항은 관광학 분야 5명 교수의 검토를 바탕으로 수정 · 보완하였다. 최초 구성된 설문지는 본 설문 시행 전 예비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예비조사의 대상은 20대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시행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은 최종적으로 수정되었다. 최종설문은 코로나-19 위험성인지 4문항, 위협평가 6문항 (지각된 취약성 3문항, 지각된 심각성 3문항), 대처평가 6문항 (자기효능감 3문항, 대처 효능감 3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보호동기와 회피의도는 각각 4문항 측정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행동계기는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항목은 모두 리커트 5점 척도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였으며 사용된 측정변수 관련 상세내용은 <표1>에 제시되었다.

Table 1. 측정변수

개념	변수	문항수	선행연구
코로나-19 위험성인지	코로나-19 위험성인지	4	이승훈, 2021; 조승아, 2021
위협평가	지각된 취약성	3	문지효·이종원, 2020; 박정숙, 2016; 이민재·서윌석, 2012
	지각된 심각성	3	
대처평가	자기 효능감	3	Cahyanto et al., 2016; Chen et al., 2019; Rogers 1975,1983; Maddux and Rogers, 1983; Wang et al., 2019
	대처 효능감	3	
보호동기	보호동기	4	
관광회피의도	관광회피의도	4	
행동계기	행동계기	3	Bae and Chang, 2020; Donohoe et al., 2018; Huang et al., 2020; Lee, 2013

2. 조사 및 분석방법

제시된 연구모델 및 가설검증을 위해 자료 수집은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설문은 코로나-19라는 상황을 반영하여 대면 설문과 온라인 설문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대면 설문은 편의표본 방법으로 연구보조

자가 방역수칙을 준수한 상황에서 설문을 전달하고 수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온라인 설문은 연구자가 설문지를 웹사이트상(Survey monkey)에 작성하고 설문링크를 공유하는 형식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하는 참가자는 20대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500개의 설문지의 분석을 위해서 SPSS와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가설검증 이전에 설문변수를 대상으로 요인을 추출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연구모델의 신뢰도와 구성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이후 AVE 검증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신뢰성, 판별 타당성, 수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이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모형 변수들 사이의 구조적인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자세한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다.

IV. 실증분석 결과

1. 표본의 일반적인 특징

대면 설문과 비대면 설문으로 수집된 설문은 총 500부였으나, 그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 14부를 제외한 486부를 본 연구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2>. 설문참여자 486명 중 남성이 198명으로 전체 40%를 차지했으며 여성은 288명으로 약 60%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연령은 25세~35세 미만이 212명(43.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25세 미만이 138명 (28.4%), 35세~45세 미만이 71명 (14.6%)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전체 참여자 중 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학교 재학/휴학이 약 33%,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하와 대학원 이상 학력이 약 7%씩 조사되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여행한 횟수를 살펴본 결과 1~2회 여행을 다녀온 참여자가 162명으로 약 33%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3~4회 (25%), 1회 미만 약 24%로 조사되었다.

Table 2.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항목	빈도(n=486)	비율(%)	
성별	남성	198	40.7
	여성	288	59.3
연령	25세 미만	138	28.4
	25세~35세 미만	212	43.6
	35세~45세 미만	71	14.6
	45세~55세 미만	45	9.3
	55세~65세 미만	19	3.9
	65세 이상	1	0.2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하	33	6.8
교육수준	대학교 재학/휴학	159	32.7
	대학교 졸업	258	53.1
	대학원 이상	33	6.8
	기타	3	0.6
여행횟수	1회 미만	116	23.9
	1~2회	162	33.3
	3~4회	122	25.1
	5회 이상	86	17.7

2.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측정변수는 이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궁극적인 연구가설 검증 이전에 연구모형 구성 개념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전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제시한 연구모델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Chi-square 값을 권장하지만, 이는 표본의 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Chi-Square 값 이외에 다양한 모델의 적합지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Hair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할 적합지수로 GFI, CFI, AGFI, RMSEA를 선정하였으며 판단 적합기준은 GFI, CFI, AGFI는 .8이상 RMSEA .7 이하이면 적합한 모델이라 판단하였다 (Hair et al., 2009).

본 연구결과 Chi-square 값=842.543, d.f.=296, P<.00001, GFI=.89, CFI=.94, AGFI=.86, RMSEA=.06 으로 제시된 모델의 적합도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Hair et al. 2009). 선행연구에 따르면 내적 일관성을 판단하는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이 0.5 이상이면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간주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행동계기 변수의 AVE 값을 제외한 모든 측정변수의 AVE값이 0.5 이상으로 각각의 변수들은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안된 연구모형의 구성 개념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요인의 개념 신뢰도 값과 AVE값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제공한 값(R)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에 대한 제곱 값들이 해당 요인의 AVE 값을 초과하지 않아 판별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3>.

Table 3. 확인적 요인분석 (CFA)

변수	설문항목	CFA 적재치	t-value	개념 신뢰도	AVE
코로나-19 위험성 인지	코로나-19 위험 인지 1	.628	-	.802	.513
	코로나-19 위험 인지 2	.515	9.639		
	코로나-19 위험 인지 3	.827	13.494		
	코로나-19 위험 인지 4	.842	13.521		
위협 평가	지각된 취약성 1	.831	-	.888	.572
	지각된 취약성 2	.831	21.023		
	지각된 취약성 3	.684	16.218		
	지각된 심각성 1	.761	18.685		
	지각된 심각성 2	.788	19.569		
	지각된 심각성 3	.619	14.326		
대처 평가	자기 효능감 1	.633	-	.894	.592
	자기 효능감 2	.627	12.214		
	자기 효능감 3	.571	11.274		
	대처 효능감 1	.899	16.095		
	대처 효능감 2	.931	16.442		
	대처 효능감 3	.871	15.750		
행동 계기	행동계기 1	.520	-	0.725	.485
	행동계기 2	.931	8.101		
	행동계기 3	.565	6.857		
보호 동기	보호동기 1	.761	-	.862	.610
	보호동기 2	.697	14.970		
	보호동기 3	.790	17.094		
	보호동기 4	.867	18.331		
관광회피 의도	관광회피 의도 1	.897	-	.883	.658
	관광회피 의도 2	.936	28.913		
	관광회피 의도 3	.755	20.815		
	관광회피 의도 4	.618	15.368		

3. 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전체 표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CFA)이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연구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되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제시된 연구모형에 대한 평가와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을 구축하고 분석하기 위해 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적용하여 모형의 적합도와 경로계수를 파악하였다. 제시된 <표 4> 에서 모형의 적합성 결과를 살펴보면 Chi-square 값=1048.23, d.f.=305, $p < .00001$, CFI=.91, GFI=.87, AGFI=.83, RMSEA=.07로 안정적인 모형 값을 보여줬다(Hair et al. 2009). 구성 개념 간의 구조적 영향 관계를 살펴보면 총 7개의 가설 중 가설7을 제외한 여섯 개의 가설이 모두 채택되었다(표4). 즉, 코로나-19 위험인지는 위협평가(H1), 대처평가(H2), 행동계기(H6)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위협평가와 대처평가는 보호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H3, H4). 마지막으로 보호동기는 관광회피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5).

Table 4. 가설 분석결과

가설	경로계수	t-value	채택여부
H1: 코로나-19 위험성 인지 → 위협 평가	.885	10.95**	채택
H2: 코로나-19 위험성 인지 → 대처 평가	.685	9.22**	채택
H3: 위협평가 → 보호 동기	.289	3.74**	채택
H4: 대처 평가 → 보호 동기	.303	4.68**	채택
H5: 보호 동기 → 관광회피 의도	.285	6.35**	채택
H6: 코로나-19 위험성 인지 → 행동 계기	.739	6.17**	채택
H7: 행동 계기 → 보호 동기	-.054	-.71	기각

Chi-square=1048.23, d.f.=305, CFI=.91, GFI=.87, AGFI=.83, RMSEA=.07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가 관광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자인 관광객의 관점에서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측정함으로써 이에 맞는 전략적인 위기관리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전문가 정화과정과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설문지를 도출하였다. 설문은 20대 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시행하였으며 총 486개의 유효한 설문지가 본 연구의 결과분석에 사용되었다. 제시된 연구모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었으며 모델 또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검증이 이뤄졌으며 총 7개의 가설 중 가설7을 제외한 6개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코로나-19 위험성인지는 위협평가와 대처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H1, H2), 이는 보호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H3, H4), 결론적으로 보호 동기는 건강 행동인 관광회피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H5).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또한 보호 동기 이론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김정은 · 김성준 · 권두순, 2016; 김종기 · 김상희, 2013; 이민규 · 김영은, 2009; 이민재 · 서원석, 2012; Chen et al., 2020; Rogers, 1983; Maddux&Rogers, 1983; Wang et al., 2019). 둘째, 코로나-19 위험성 인지는 행동 계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6). 이는 건강신념 모델과 기존의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로 외부 위험요소의 인지가 행동 계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보여준다(김유경 et al., 2012; 안순태 · 이하나, 2016; 조성배 · 권두순 · 이미영, 2014; Bae & Chang, 2020; Donohoe et al., 2018; Huang et al., 2020; Lee, 2013). 셋째, 행동 계기는 보호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7). 즉, 행동을 실행하게 만드는 매스미디어 정보, 기사, 공익광고, 타인의

조건 등 내 외적인 자극은 보호행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이론적 및 실무론적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먼저 이론적인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현재까지 연구가 미흡한 코로나-19의 위험인지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19가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인지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험인지 및 행동을 살펴본 논문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관광객들의 위험지각과 행동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이론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둘째, 건강과 관련된 분야에서 주로 사용됐던 보호동기이론(PMT)과 건강신념모델(HBM)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관광학과 호스피탈리티는 학문의 특성상 여러 다른 학문의 이론들이 관광학과 호스피탈리티 산업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됐다. 그러나, 이전의 많은 선행연구는 관광객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계획된 행동이론(TPB)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위기 상황에서 관광객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PMT와 HBM을 이용한 경우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관광객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PMT와 HBM의 관광 분야 적용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학문적인 이해를 도왔다. 셋째, 다양한 변수와 보호동기간의 유의한 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혀냄으로써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를 다시 한번 지지하였다(김정은 · 김성준 · 권두순, 2016; 김종기 · 김상희, 2013; 이민규 · 김영은, 2009; 이민재 · 서원석, 2012; Chen et al., 2020; Rogers, 1983; Maddux&Rogers, 1983; Wang et al., 2019). 또한, 관광객의 관광회피 행동은 코로나-19라는 위험인지로 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수와 보호동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학문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광 및 호스피탈리티 분야의 관점에서 실무론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위험인지와 행동 변수는 관광객이 느끼는 코로나-19를 더욱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계량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즉, 제시된 변수로 관광객들이 느끼는 위험인지의 정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적합한 의사결정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연구모델의 검증을 통하여서 관광객들의 보호 동기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이해하고 관련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즉, 보호동기가 관광 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관광객들의 행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관광객들의 유형에 맞게 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추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관광 위기상황에서 관광객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했음에도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표본 연령대의 다양성 부족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486명의 참여자 중 약 72% 정도가 25세 미만~ 35세 미만으로 표본이 20대에서 35세에 집중되어 있어 표본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대표성을 더욱 반영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연구의 모형의 일반화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행동 계기의 AVE 값(0.485)이 기준치(0.5)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변수를 다시 한번 수정 · 보완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강민지 (2017), "SNS미디어에 표현된 자아유형의 인상관리 정도에 따른 헬스커뮤니케이션 캠페인 수용도 연구: 고프만의 인상관리 이론과 건강신념모델(HBM) 적용을 중심으로". 성균관 대학교 학위논문.
- 경기연구원 (2020). "코로나19, 여행의 미래를 바꾸다".
- 고동우, 이상훈, 정소정 (2021), "코로나19 팬데믹이 공동체의식과 관광개발태도에 대해 미치는 영향", *여가관광연구*, 34(1), 5-27
- 김난영 (2021),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관광교육의 수업 질, 수업만족, 학습성과에 관한 연구". *호텔리조트연구*, 19(5), 207-226.
- 김동현 (2021), "코로나시대 리조트이용고객의 회복적 서비스스케이프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쾌락적 가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 46(1), 69-92.

- 김성태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위험지각과 감정반응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호텔리조트연구*, 19(5), 133-150.
- 김영남, 홍성화 (2020a), “코로나 19 위험 인식과 낙관적 편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제주 방문 관광객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44(8), 79-101.
- 김영남, 홍성화 (2020b), “뉴노멀(New Normal) 2.0 시대의 관광: 코로나19 유행 기간 제주 방문 관광객 IPA 결과를 중심으로”, *MICE관광연구*, 60(0), 143-162.
- 김영현 (2021), “호텔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관련 언론 기사 분석”, *관광경영연구*, 25(1), 55-72.
- 김예술, 진현정 (2021),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소된 외래관광객으로 인한 관광문화 및 전체 산업 손실 과급효과 분석.”, *관광학연구*, 45(3), 33-53.
- 김유경, 명훈, 김용범 (2012), “한국의 치과의료서비스에 대한 중국인의 지각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상해 거주자를 중심으로 건강신념모델”,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21(4), 215-231.
- 김정은, 김성준, 권두순 (2016),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 행동에 관한 연구: 보호동기이론을 중심으로”, *정보시스템연구*, 25(3), 01-30.
- 김종기, 김상희 (2013), “온라인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보호동기이론을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20(3), 63-85.
- 나소정 (2020),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교육이 교육서비스 가치와 전공만족에 미치는 영향 : 2년제 항공서비스 학과를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 45(4), 141-165.
- 나중민, 윤혜진 (2021), “관광산업 위기와 영향에 따른 정책 대응 전략 연구: COVID-19에 대한 중앙정부 공무원들의 관점 탐색”, *Tourism Research*, 46(2), 135-159
- 문지호, 이종원 (2020), “전염성 질병에 따른 여행 소비자의 여행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보호동기이론을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24(5), 239-259.
- 류나은, 김인신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워터파크 위험지각과 개선된 서비스 품질요인 탐색”, *Tourism Research*, 45(4), 191-209.
- 박정숙 (2016), “재난 위험지각이 관광행동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호동기이론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정숙, 이훈 (2017), “자연재해 위험지각이 관광행동에 미치는 영향: 보호동기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관광학회 발표논문
- 박창원, 이상현, 이여경 (2020), “코로나19로 인한 MICE 행사 취소의 법적 쟁점: MICE 이해관계자간 계약관계를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 45(4), 279-299.
- 안동, 유효강 (2020), “코로나 19의 발생이 중국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책”, *Tourism Research*, 45(2), 309-325.
- 안순태, 이하나 (2016), “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 보도 방향: 건강신념모델을 통한 우울증 보도 내용분석”, *보건사회연구*, 36(1), 529-564.
- 양진연, 문상정 (2021),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원격수업품질과 강의만족의 구조적 관계연구: 커뮤니케이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25(2), 305-330
- 우형진 (2014), “지각된 사이버 보안 위협이 개인정보보호 증진을 위한 기술채택 및 지속기용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14(2), 220-257.
- 이관표 (2020),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의 위험지각이 국내여행선호와 관광선호유형에 미치는 영향”, *호텔리조트연구*, 19(5), 169-186.
- 이민규, 김영은 (2009), “질병 관련 인터넷 정보 이용 효과 연구. 보호동기이론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9(4), 506-539.
- 이민재, 서원석 (2012), “남북 간 정치적 불안정에 대한 위험인지와 보호동기, 여행회피의도 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중국인 잠재방문객을 대상으로 보호동기이론을 적용하여”, *관광학연구*, 36(7), 3-53.
- 이승훈 (2021), “COVID-19 위험지각과 해외여행 관여도가 포스트코로나 해외여행의도에 미치는 영향: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25(2), 437-457.
- 이웅규, 구정대 (2020),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정부의 혁신적인 관광정책 연구”, *관광학연구*, 44(7), 87-106.
- 이주양 (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행동에 대한 관광 및 외식 경험자의 주관적 인식 유형: Q-방법론을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25(3), 1-19.

- 이진희, 김나영 (2021), “소셜 미디어 마케팅에 따른 이용자 시장세분화 연구: COVID-19상황에서 대구광역시의 관광정보를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 46(1), 425-441.
- 이진희, 김남조 (2021), “근거이론에 기반한 팬데믹시대 잠재관광자의 관광행동 변화 경험 연구”, *관광학연구*, 45(5), 57-76.
- 정산철, 김경배, 이훈 (2021),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연기반 여행은 사람들의 여행행복을 증진시키는가?- 위험지각, 주의회복이론 및 여행행복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45(4), 33-56
- 조성배, 권두순, 이미영(2014), “건강신념모델을 이용한 기업 정보보안 행동에 관한연구”, *중소기업연구*, 36(2), 241-263.
- 조승아 (2021a), “전염병에 대한 위험지각이 관광의향에 미치는 영향 : 코로나 19 사례를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 46(1), 485-504.
- 조승아 (2021b), “코로나 19 위험인식에 대한 낙관적 편향이 잠재 관광객의 관광의도에 미치는 영향: 낙관적 편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25(3), 523-542.
- 하경희, 신원섭 (2021), “포스트코로나 시대 산림치유 패러다임의 변화: 산림치유와 코로나 19 관련 뉴스 검색어 분석을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25(2), 511-637.
- 하정우, 김창수 (2020), “바이러스 관광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회복탄력성 탐색적 연구 -‘코로나19’(코로나-19) 재난을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 45(2), 499-517.
- 하홍국, 이희찬 (2020), 전시회 참관수요 결정요인 분석 코로나19시대의 전시회 관여도를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24(6), 763-782.
- 홍경옥 (2020), “코로나시대에 대학생들의 국내여행 선호도 연구: 키포인트분석의 적용”, *관광경영연구*, 98(0), 819-841.
- 홍민정, 오문향 (2020),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국내 잠재 관광객의 감정 반응 연구: 의미론적 네트워크 분석의 활용”, *관광연구*, 35(3), 47-65.
- Bae, S. Y. and P. J. Chang, (2020), “The effect of coronavirus disease-19 (COVID-19) risk perception on behavioural intention towards ‘untact’tourism in South Korea during the first wave of the pandemic (March 2020)”, *Current Issues in Tourism*, 1-19.
- Balbach, Edith D., Smith, A. Elizabeth and Ruth E. Malone(2006), “How the health belief model helps the tobacco industry: individuals, choice, and “information”, *Tobacco Control*, 15(4), 37-43.
- Bhati, A. S., Z. Mohammadi, M. Agarwal, Z. Kamble and G. Donough-Tan (2020), “Motivating or manipulating: the influence of health-protective behaviour and media engagement on post-COVID-19 travel”, *Current Issues in Tourism*, 1-5.
- Cahyanto, I., M. Wiblishauser, L. Pennington-Gray and A. Schroeder (2016), “The dynamics of travel avoidance: The case of Ebola in the US”, *Tourism Management Perspectives*, 20, 195-203.
- Carr, A. (2020), “COVID-19, indigenous peoples and tourism: a view from New Zealand”, *Tourism Geographies*, 1-12.
- Champion, V. L. (1984), “Instrument Development for Health Belief Model Constructs”, *Advances in Nursing Science*, 6(3), 73-85.
- Chen, F., S. Dai, Y. Zhu and H. Xu (2020), “Will concerns for ski tourism promote pro-environmental behaviour? An implication of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22(3), 303-313.
- Couto, G., R. A. Castanho, P. Pimentel, C. Carvalho, Sousa, Á., and C. Santos(2020), “The impacts of COVID-19 crisis over the tourism expectations of the Azores archipelago residents”, *Sustainability*, 12(18), 7612.
- Donohoe, H., O. Omodio and J. Roe, (2018), “Tick-borne disease occupational risks and behaviors of Florida Fish, Wildlife, and parks service employee: A health belief model perspective”, *Journal of Outdoor Recreation and Tourism*, 22, 9-17.
- Floyd, D. L., S. Prentice-Dunn and R. W. Rogers (2000), “A meta-analysis of research on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0(2), 407-429.

- Foo, L. P., M. Y. Chin , K. L. Tan and K. T. Phuah (2020), "The impact of COVID-19 on tourism industry in Malaysia", *Current Issues in Tourism*, 1-5.
- Glanz, K., B. K. Rimer and K. Viswanath (Eds.). (2008),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John Wiley and Sons.
- Hair, J., B. Black, R. Babin, R. Anderson , and R. Tatham (2009), "Multivariate Data Analysis", (7th ed). New York, NY: Prentice-Hall.
- Han, H., A. Al-Ansi , L. Chua, B., B., Tariq, A. Radic and S. H. Park(2020a), "The post-coronavirus world in the international tourism industry: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safer destination choices in the case of US outbound tourism",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18), 6485.
- Han, H., S. Lee, J. J.Kim and H. B. Ryu (2020b), "Coronavirus Disease (COVID-19), Traveler Behaviors, and International Tourism Businesses: Impact of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Knowledge, Psychological Distress, Attitude, and Ascribed Responsibility", *Sustainability*, 12(20), 8639.
- Hao, F., Q. Xiao and K. Chon (2020), "COVID-19 and China's hotel industry: Impacts, a disaster management framework, and post-pandemic agenda",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90, 102636.
- Hochbaum, G. M. (1958), "Public participation in medical screening programs: A socio-psychological study (No. 572)",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Public Health Service, Bureau of State Services, Division of Special Health Services, Tuberculosis Program.
- Hong, J. S., M. L. Hu, M., C. C. C. Teng and L. Lin (2014), "Energy saving and carbon reduction behaviors in tourism—a perception study of Asian visitors from a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perspective",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 19(6), 721-735.
- Huang, X. , S. Dai and H. Xu (2020), "Predicting tourists' health risk preventative behaviour and travelling satisfaction in Tibet: Combin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nd health belief model", *Tourism Management Perspectives*, 33, 100589.
- IATA (2020). Air passenger market analysis.
- Jiang, Y. and J. Wen (2020), "Effects of COVID-19 on hotel marketing and management: a perspective article",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mporary Hospitality Management*, 32(8), 2563-2573.
- Kock, F., A. Nørfelt, A. Josiassen, A. G. Assaf and M. G. Tsonas (2020), "Understanding the COVID-19 tourist psyche: The evolutionary tourism paradigm", *Annals of tourism research*, 85, 103053.
- Lee, S. T. (2013), "Understanding customers' healthy eating behavior in restaurants using the health belief model and theory of planned behavior", Virginia tech.
- Lew, A. A., J. M. Cheer, M. Haywood, P. Brouder and N. B. Salazar (2020), "Visions of travel and tourism after the global COVID-19 transformation of 2020", *Tourism Geographies*, 1-12.
- Li, J., T. H. H. Nguyen and J. A. Coca-Stefaniak(2020), "Coronavirus impacts on post-pandemic planned travel behaviours", *Annals of Tourism Research*.
- Maddux, J. E. and R. W. Rogers(1983), "Protection motivation and self-efficacy: A revised theory of fear appeals and attitude chang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5), 469-479.
- Mao, Y., J. He, A. M. Morrison and Andres J. Coca-Stefaniak (2020), "Effects of tourism CSR on employee psychological capital in the COVID-19 crisis: from the perspective of 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 *Current Issues in Tourism*, 1-19.
- McArthur, H. Laura , Holbert, Donald, and William A., III. Forsythe (2006), "Compliance With Food Safety Recommendations Among University Undergraduates: Application of the Health Belief Model",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35(2), 160-170.
- Nepal, S. K. (2020), "Travel and tourism after COVID-19—business as usual or opportunity to reset?", *Tourism Geographies*, 1-5.

- Neuburger, L. and R. Egger (2020), "Travel risk perception and travel behaviour during the COVID-19 pandemic 2020: A case study of the DACH region", *Current Issues in Tourism*, 1-14.
- O'Connell, K. Janelle, Price, H. James, Roberts, M. Stephen, G. Stephen and Robert. McKinley, (1985), "Utilizing the Health Belief Model to Predict Dieting and Exercising Behavior of Obese and Nonobese Adolescents", *Health Education and Behavior*, 12(4), 343.
- Rogers, R. W. (1975), A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of fear appeals and attitude change1, "*The journal of psychology*", 91(1), 93-114.
- Rogers, R. W. (1983), "Cognitive and psychological processes in fear appeals and attitude change: A revised theory of protection motivation. Social psychophysiology", *A sourcebook*, 153-176.
- Rogerson, C. M. and T. Baum(2020), "COVID-19 and African tourism research agendas. *Development Southern Africa*", 37(5), 727-741.
- Ruan, W., S. Kang and H. Song (2020), "Applying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to understand international tourists' behavioural intentions under the threat of air pollution: A case of Beijing, China", *Current Issues in Tourism*, 1-15.
- Sánchez-Cañizares, S. M., L. J. Cabeza-Ramírez, G. Muñoz-Fernández and F. J. Fuentes-García (2020), "Impact of the perceived risk from COVID-19 on intention to travel", *Current Issues in Tourism*, 1-15.
- Sapp, Stephen G. and Chih-Yuan. Weng (2007), "Examination of the health-belief model to predict the dietary quality and body mass of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31(3), 189.
- Seow, A. N., Y. O. Choong, K. Moorthy and C. K. Choong (2020), "Predicting medical tourism behavioural intention using social cognition models", *Tourism Review*.
- Shim, M. and M. You (2015), "Cognitive and affective risk perceptions toward food safety outbreaks: Mediating the relation between news use and food consumption intention,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25 (1), 48-64.
- Sigala, M. (2020), "Tourism and COVID-19: impacts and implications for advancing and resetting industry and research",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 Tremblay-Huet, S. (2020), "COVID-19 leads to a new context for the "right to tourism": a reset of tourists' perspectives on space appropriation is needed.", *Tourism Geographies*, 1-4.
- UNWTO(2020), "The impact of COVID19 on Tourism".
- Wang, J., B. Liu-Lastres, B. W. Ritchie and D. Z. Pan (2019), "Risk reduction and adventure tourism safety: An extension of the risk perception attitude framework (RPAF)", *Tourism Management*, 74, 247-257.
- Wen, J., M. Kozak, S. Yang and F. Liu, (2020), "COVID-19: potential effects on Chinese citizens' lifestyle and travel", *Tourism Review*.
- Yeh, S. S. (2020), "Tourism recovery strategy against COVID-19 pandemic, "Tourism Recreation Research", 1-7.
- Zenker, S. and F. Kock,(2020), "The coronavirus pandemic—A critical discussion of a tourism research agenda", *Tourism Management*, 81, 104164.
- Zhang, K., Y. Hou and G. Li (2020), "Threat of infectious disease during an outbreak: Influence on tourists' emotional responses to disadvantaged price inequality", *Annals of Tourism Research*, 84, 102993.
- Zheng, D., Q. Luo and B. W. Ritchie (2020), "Afraid to travel after COVID-19? Self-protection, coping and resilience against pandemic 'travel fear'", *Tourism Management*, 104261.
- Zielinski, S. and C. M. Botero (2020), "Beach Tourism in Times of COVID-19 Pandemic: Critical Issues, Knowledge Gaps and Research Opportun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19), 7288.